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양계산업 전반을 위태롭게 한 조류인플루엔자는 다시는 국내에서는 발생하면 안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방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 당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대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조류인플루엔자로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본격화 되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아는 자명한 사

실입니다.

수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외에도 육계표준사육계약서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나 이만 줄이고, 올유년 닭의 해 제17 회장님께 거는 기대는 우리 양계인 모두 남다를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양계**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 관리 유도

정 영 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희망찬 올유년 닭의 해를 맞이하여 양계산업의 일익 번창하심과 양계가족 모두의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양계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효시를 이루었고, 양계협회는 축산단체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닭고기와 계란은 국민식생활 가운데 필수 영양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식생활 양상은 양보다 질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가축질병 청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위생처리

는 물론 유통·소비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계업계는 지난 '03년 12월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의 닭과 오리농장에서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1,53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태국, 베트남등 국가들



과 달리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았으며, 작년 3월에 조기 종식되어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국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양계산업의 성공적 열쇠는 무엇보다도 닭 질병 예방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신임 양계협회장님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민

적 여망을 받들어 종계와 육계·산란계 등 각 분과가 화합하여 상호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양계산업의 중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며, 축산관련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전략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계협회 회원가족 모두와 함께 신임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양계

질병방역과 양계산물 안전성확보에 총력을...

신 정 재
한국동물약품협회장

○ 유년 닭의 해를 맞아 이번에 선출되신 회장님의 각오는 남다른 것이라 생각되며 양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양계산업은 현재 수급문제, 질병방역, 양계업 등록제, 수입육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질병방역과 양계생산물의 안전성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질병방역에 실패했을 경우 업계의 존폐가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방역에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생산자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의식 고취와 상시적인 질병예방 활동을 철저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아진 소비자의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양계생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약품 사용시 휴약기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쪼록 을유년 닭의 해에 양계산업의 큰 발전과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양계

